

# 한국교원대학교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자체평가보고서

## I. 선행학습 영향평가 개요

### 1. 대학별고사 실시 현황

○ 2024학년도에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입학전형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인 학생부종합우수자·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대상자 전형과 정시모집 예술체육실기전형이 있다. 그러나 정시모집 예술체육실기전형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적용의 배제)에 따라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유형은 교직 적·인성 면접이고, 면접 시 사용한 문항은 보편적인 교육 관련 내용이며 특정 교과와는 관련이 없다.

<표1>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대상 전형 현황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O,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O,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타	
수시	일반전형(학생부종합우수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 계열 제외)	○		○				X
	기회균형(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		○				X
	기회균형(농어촌학생)	초등/국어/영어/수학/컴퓨터교육과	○		○				X
	기회균형(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		○				X
	기회균형(장애인 등 대상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음악교육과 제외)	○		○				X
	지역인재전형(청람지역인재)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X						
	외국인전형(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 계열 제외)	X						
정시	일반전형(수능성적우수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X						
	일반전형(예술체육실기)*	음악/미술/체육교육과	○			○			○(음악· 미술·체육 교과)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O,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O, X)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타	
	기회균형(장애인 등 대상자)	시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X						

\* 정시모집 예술체육실기 일반전형의 실기고사는 예외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배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2. 전형 및 모집계열별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 우리 대학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다음의 이행 사항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였다.

<표2>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이행 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 사항	점검 결과
법령 이행	교칙	선행학습 영향평가 및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 관련 교칙이 있는가?	○
	위원회 구성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에 현직 고등학교 교원이 참여하였는가?	○
	결과 공개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가?  한국교원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a href="https://ent.knue.ac.kr/smain.html">https://ent.knue.ac.kr/smain.html</a> ) > 공지사항	○
영향평가 시행 범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모든 유형의 입학전형에 대하여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였는가?	○*
자체평가		대학별고사 출제·검토 과정 참여자의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자체평가 결과를 분석하였는가?	○
결과 분석	분석 범위	교과 지식에 관련된 모든 문항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충실히 하였는가?	해당 없음
	작성의 충실성	교과 교육과정 관련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문항카드 등 양식에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해당 없음
	현황표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표를 충실하게 작성하였는가?	해당 없음

\* 정시모집 예술체육실기 일반전형의 실기고사는 예외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배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우리 대학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을 준수하여 대학별고사를 진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표3>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실시 결과

구분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대학별 고사 실시 여부 (O, X)	대학별고사 유형					교과 교육과정 관련 여부 (O, X)	영향평가 실시 결과
				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 구술고사	실기· 실험고사	교직적성· 인성검사	기타		
수시	일반전형(학생부종합우수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 계열 제외)	○		○				X	준수
	기회균형(국가보훈대상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		○				X	준수
	기회균형(농어촌학생)	초등/국어/영어/수학/컴퓨터교육과	○		○				X	준수
	기회균형(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		○				X	준수
	기회균형(장애인 등 대상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음악교육과 제외)	○		○				X	준수
	지역인재전형(청람지역인재)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X							
	외국인전형(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 계열 제외)	X							
정시	일반전형(수능성적우수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X							
	일반전형(예술체육실기)*	음악/미술/체육교육과	○		○				○(음악· 미술·체육 교과)	해당 없음*
	기회균형(장애인 등 대상자)	사범대학 해당 학과(예술/체육 계열 제외)	X							

\* 정시모집 예술체육실기 일반전형의 실기고사는 예외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 적용 배제[「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항은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2개 문항이다. 본 문항들은 보편적 교육 관련 내용이며 특정 교과와는 관련이 없다.

<표4> 대학별고사 문항별 적용 교과 현황

시험유형	입학전형	모집계열(단위)	입학 모집요강에 제시한 자격 기준 과목명	문항번호	하위문항번호	계열 및 교과								
						인문·사회			수학	과학				영어
						국어	사회	도덕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면접·구술고사	일반전형(학생부종합우수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전체 학과(음악 교육과 제외)	해당 없음 (교육관련 내용)	1	1	보편적 교육 관련 내용 (특정 교과와 관련 없음)								
	기회균형(국가보훈대상자)				2									
	기회균형(농어촌학생)			2	1									
	기회균형(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2									
	기회균형(장애인 등 대상자)				2									

## II. 선행학습 영향평가 진행 절차 및 방법

###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대학의 자체 규정

- 「한국교원대학교 학칙」(규정 제830호) 제40조의 2(입학전형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 ①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대학별고사(논술 등 필답고사, 면접·구술고사, 신체검사, 실기·실험고사 및 교직 적성·인성검사를 말한다)를 실시하는 경우 선행학습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8.>
  - ②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5. 3. 18.>

- 「한국교원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지침」(일부개정 2021. 3. 18.)

<표5> 「한국교원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

한국교원대학교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에 관한 지침

제정 2015. 3. 24.

일부개정 2021. 3. 1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교원대학교 학칙」 제40조의2에 의거하여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한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입학학생처장, 입학학생처 부처장, 입학인재관리과장으로 하며, 임명·위촉직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현직 고등학교 교원,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입학학생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임명·위촉직 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신규 임명·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입학학생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입학학생처 부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⑤ 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대입전형 반영계획에 관한 사항

2. 기타 영향평가와 관련된 주요 사항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5조(평가절차 및 방법) ① 영향평가는 매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대학별 고사가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② 위원장은 영향평가에 대한 연구조사를 목적으로 별도의 연구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③ 연구팀은 영향평가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며, 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한 후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평가결과 활용 및 공시) ① 총장은 영향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 반영할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영향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대입전형에의 반영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

제7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영향평가 등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학생처장이 정한다.

부칙(2015. 3. 2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 3. 18.)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 2. 선행학습 영향평가위원회 조직 구성

-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와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팀(이하, 연구팀)’을 구성하였다.
- 위원회는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충북교육청 장학사) 1명, 현직 고등학교 교원 1명, 학부모 1명 등 외부 위원 3명과 입학학생처장, 입학학생처 부처장, 입학인재관리과장, 학내 교수 등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 및 평가되었는지 여부’와 ‘대학별고사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되었는지 여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계획’ 등에 대해 심의한다.
- 연구팀은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하였다. 이 연구팀의 책임자는 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입학학생처 부처장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인 학내 교수 2명과 입학사정관 1명이 연구위원(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였다.

<표6> 선행학습 영향평가 관련 조직 구성

구분	구성	역할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li> <li>※ 위부 위원: 고교 교육과정 전문가(장학사 1명), 현직 고등학교 교원(1명), 학부모(1명) 등 3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학별고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서 출제 및 평가되었는지 여부 심의</li> <li>대학별고사로 인해 선행학습이 유발되었는지 여부 심의</li> <li>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의 대학 입학전형 반영 계획 심의</li> </ul>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구책임자(입학학생처 부처장) 및 공동연구원(학내 교수 2명, 입학사정관) 등 4명으로 구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보고서 작성</li> </ul>

### 3.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일정 · 절차

-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는 2023. 5. 30.(화) ~ 2024. 1. 12.(금)까지 8개월간 연구팀이 진행하였고,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위원회 심의는 2024. 3. 21.(목)에 진행하였으며, 최종 결과는 2024. 3. 29.(금) 16:00 이전에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대입정보 포털 ‘어디가’(www.adiga.kr)에 게시할 예정이다.

<표7> 선행학습 영향평가 절차 및 기간 · 내용

절차	기간	내용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 실시	2023. 5. 30.(화) ~ 2024. 1. 12.(금)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연구보고서 작성
대입전형 선행학습 영향평가 위원회 심의	2024. 3. 21.(목) 17:30 ~ 18:00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심의
최종 결과 보고 및 결과 공개	2024. 3. 29.(금) 16:00 이전	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공개 ※ 입학안내 홈페이지 및 대교협 대입정보포털 (www.adiga.kr)

## Ⅲ. 대학별고사 준비 및 시행 과정 분석

### 1. 본교 면접의 특징

- 교육부의 「대입전형 간소화 및 대입제도 발전방안」(2013. 12. 2.)에 따라 201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부터 본교 면접은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형 심층 면접을 폐지하는 대신, 교직 적·인성 문항과 개방형 질문을 활용해 지원자의 예비교사로서의 인성과 적성, 역량을 평가하는 교직 적·인성 중심의 면접을 운영하여 수험생들의 면접 준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선행학습 유발을 억제해 왔다.
- 본교 면접 형태는 개별 면접으로, 수험생 1인에 대해 3인의 면접위원들이 정성적·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은 전공적합성, 교직 적성, 교직 인성, 문제해결능력이다.
-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은 입학인재관리과에서 설치한 ‘면접 문제 출제 본부’(보안 관리, 접근 통제)에서 합숙 출제하였고, 개방형 질문은 별도 문제 출제를 하지 않고, 입학인재관리과에서 사전에 제공한 ‘개방형 질문 예시 자료’를 참고하여 면접위원이 질문하도록 하였다.

#### <표8> 개방형 질문 예시

---

1. 고등학교 수업 중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가장 흥미 있었던 주제는 무엇인가요?
  2. 실생활에서 지원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확인하거나, 응용해 본 경험이 있다면 말씀해 보시오.
  3. 지원 전공과 관련하여 최근에 읽은 책이 있다면, 간단하게 소개해 보시오.
  4. 학교생활 중 지원 전공 또는 특정 분야에 몰두하여 최선을 다한 경험이나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보시오.
  5. 지원자가 생각하는 좋은 교사란 무엇인지 자유롭게 말씀해 보시오.
- 

- 면접 실제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이며 면접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표9> 2024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시간 및 절차

---

- ① 면접대기실 입실 ⇒ ② 발표자료 작성실 입실 ⇒ ③ 교직 적·인성 문항에 대한 발표자료 작성(약 10분) ⇒ ④ 면접실 입실 ⇒ ⑤ 작성 내용 발표(약 3분) ⇒ ⑥ 발표 내용 관련 질의/응답(약 3분) ⇒ ⑦ 개방형 질문 관련 질의/응답(약 4분)
- 

※ 면접 시간 및 절차는 학과별·수험생별로 일부 다를 수 있음.

※ 수험생 본인이 작성한 교직 적·인성 문항에 대한 발표 자료를 면접 시 보면서 발표할 수 있음.



- 2024학년도 수시모집 면접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누어 대면 면접으로 진행하였다. 이에 따라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문제를 출제하였다. 다만, 교직 적·인성 면접 문제에 따라 수험생의 유·불리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접 문제의 난도는 최대한 균등하게 조정하였다.

## 2. 출제 전

-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
  - 우리 대학 면접은 교과지식을 묻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고등학교 교육과정 분석은 실시하지 않는다.
- 출제 및 검토 위원 인력풀 구성
  - 학내 교수 중에서 입학사정관 경력, 고교 교육과정 개발 참여 경력 등을 고려하여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 출제 및 검토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였다. 우리 대학은 유·초·중등 교원을 모두 양성하는 국내 유일의 종합교원양성대학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 교수들은 초·중등 교원 경력자, 교육과정 개발 위원, 교과서 집필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 등의 다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 대학 내부에서 충분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고, 교과 지식을 묻는 형태의 면접 형태가 아니며, 면접 문제 유출로 인한 입시의 공정성 훼손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나 고등학교 교사들을 출제 및 검토 위원으로 참여시키지 않았다.
- 출제·검토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 출제 전에 사전 교육(1회)을 실시하는 데 1시간 정도가 소요[2023. 11. 10.(금) 11:00-11:40] 되며, 그 교육 내용은 면접 문제 출제 매뉴얼 교육, 면접 문제 출제 시 유의사항, 2023학년도 기출 문제 및 관련 피드백 전달, 최근 5년간 기출 문제 확인, 면접 문제의 최신 경향 등이다.
  - 면접 출제 및 검토 위원들이 준수하여야 하는 “대학 입학 면접 출제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표10> 「대학 입학 면접 출제 매뉴얼」(제정 2022. 11. 25.)

---

### 대학 입학 면접 출제 매뉴얼

제정 2022. 11. 25.

#### 1. 출제 전 사전 숙지 사항

- 교육 관련 내용과 일반적인 사회현상 관련 이슈를 중심으로 수험생의 의견을 묻는 구술형 면접문제(개방형 질문 형태)를 출제 하되,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출제한다.
-

-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35조(입학전형자료)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 ▷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대학 수준 이상의) 사실, 개념, 내용 등 출제 금지
- 수험생에게 부담이 되는 교과 중심의 문제 풀이식 구술형 면접문제는 출제하지 아니한다.
- ▷ 「대입전형 기본사항」(한국대학교육협의회) 준용
- 국·영·수 중심 본고사 형태의 면접문제는 출제하지 아니한다.
-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제135차 이사회 의결사항(2008. 2. 4.)

## II. 출제 작업 시 준수 사항

### 1. 문항 초안 제작

- 교사로서 교과지도 및 생활지도와 같은 교직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성, 태도 및 교직수행능력 등의 영역으로 교직 적성, 봉사와 나눔, 리더십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출제하되, 가급적 특수(교과)지식보다는 교직생활에 필요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상황과 소재를 사용한다.
- 기출문제를 반드시 검토하여 최근 5년 이내에 기출된 주제 및 개념, 질문은 다시 출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출제한다.
- 면접문제는 제출양식에 의거하여 작성하되, 지문, 질문, 출제의도, 평가 주안점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면접 문제 출제 시 다음 용어와 종결 표현은 통일하여 일관되게 사용한다.
  - ▷ 지원 학생, 예비교사, 면접 학생, 면접 대상자, 피면접자, 학생 등 ☞ 면접 대상 학생
  - ▷ 질문: ~ ~ 말하시오, ~ ~ 설명하시오, ~ ~ 제시해 보자 등 ☞ 설명해 보자.
- 특정 용어의 올바른 표기나 사전적 의미 등은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이나 고려대한국어대사전(<https://dic.daum.net>)을 검색하여 확인한다.

### 2. 유불리 발생 방지

- 특정 학교급별(유아, 초등, 중등) 성격이 부각되지 않게 출제한다.
  - ▷ 예) A중학교 ☞ A학교, 아동 ☞ 학생
  - ▷ 특정학교급에 국한된 용어 사용 지양(자유학기제, 돌봄 등)
- 특정 지역, 특정 고교, 특정 계열 학생들에게 친숙하거나 유리할 수 있는 내용을 문제로 출제하지 않는다.
  - ▷ 예) 경기도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경기꿈의대학’
  - ▷ 예)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정책
  - ▷ 예) 문과 계열 학생들에게 친숙한 사회 교과 사실, 개념 등 사용
-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에 유불리가 발생할 문제는 출제하지 않는다.

### 3. 난이도 적정화

- 문제의 난이도는 오전 오후반이 균등할 수 있도록 하며, 문제의 수준은 평이하지만, 가치관이나 관점에 따라 다른 의견과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내용으로 출제한다.

- 문제의 난이도를 검토할 때에는 면접 문제에서 다루는 내용에 대한 수험자의 친숙도, 면접 문제 유형의 복잡도, 지문의 길이나 어려운 용어 사용 여부,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고력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III. 문항 검토 시 주의 사항

- 본 면접문제와 출제의도·평가 주안점 등은 면접 종료 후 우리 대학 입학안내 홈페이지에 공고되니, 출제위원은 면접문제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대학 등의 입학전형 등)
- 문항 점검표 등을 활용하여 문항 검토 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 〈문항 점검표 예시〉

점검 사항	예	아니요
① 기출 문제나 학원 등의 예상 문제와 차별화되는 참신한 문항인가?		
② 수험생의 사고력 등 여러 능력을 변별할 수 있는 문항으로서 적절한가?		
③ 필요한 경우, 답을 찾기 위한 조건이나 용어에 대한 해설이 충분히 제시돼 있는가?		
④ 불필요한 장황한 표현이 없으며 전체 지문의 길이 등은 적당한가?		
⑤ 지문, 질문, 출제의도, 평가 주안점 등의 완성도가 높은가?		
⑥ 오전반과 오후반 문항이 균형감이 있으며 난이도가 적정한가?		
⑦ 장애 유무나 특정 학교급, 학과, 지역, 고교, 계열, 성별 등에 따른 유불리가 존재하는가?		
⑧ 학교나 교직에 부정적인 내용을 포함하는가?		
⑨ 차별적 표현을 포함하거나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내용이 있는가?		

### IV. 면접 시행 및 완료 후 관리

- 학과별로 면접 시행 시 면접문제와 관련하여 면접위원의 질의 사항이 있을 시 출제위원(장)이 답변한다. 질의 내용은 기록으로 남겨 추후 출제 시 시사점으로 활용한다.
- 면접 완료 후 문항 공개 전, 문항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예: 단순 오타자 발생 등)이 발견 시 지체 없이 입학학생처장에게 보고한다.
- 사후 관리 차원에서 수험생들의 의견 확인(예: 인터넷 게시글 확인), 각 학과 면접위원들의 의견 청취, 입학사정관 연수 등에서 면접문제에 대한 의견 발생 시 청취 등을 통해 사후 면접 문제 출제 작업의 개선에 기여한다.

### 3. 출제 과정

- 수시모집 출제위원은 학내 교수 4명이며 검토위원을 겸직한다. 그리고 출제위원장은 입학학생처 부처장(교수입학사정관)이며, 검토위원장을 겸직한다. 출제 관련 사전 교육을 마친 후 출제위원은 개별적으로 면접 문제를 2개씩 출제한다.

<표11> 대학별고사(면접) 출제 참여 인원 현황

입학전형	모집계열	출제·검토위원	전체 위원	교수 위원	교사 위원 (일반고 교사위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우수자·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대상자)	초등교육과·사범대학 전체 학과(음악교육과 제외)	출제위원	4명	4명	-
		검토위원*	4명	4명	-

\* 출제위원이 검토위원 겸직

- 출제위원들이 모두 출제를 완료하면 그 문제에 대해 출제위원 전원이 공동 검토한다. 그 후 출제에 참여한 입학사정관이 출제된 문항에 대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위반 사항이 없는지 최종 검토한다.
- 이렇게 최종 검토하여 완성된 문항 중 완성도, 면접반(오전반, 오후반)별 난도 등을 고려하여 출제위원장이 2개 문항을 본 문항으로 선정한다. 이어서 출제위원장은 본 문항 유출 등 비상시를 대비하여 2개 문항을 예비 문항으로 선정한다.
- 선정된 본 문항과 예비 문항은 진행위원(입학사정관 2명, 타 부서 직원 1명)에게 인계되며, 진행위원은 면접 문항 인쇄 및 밀봉 작업을 수행한다.
- 밀봉 작업까지 완료된 문항은 입학인재관리과장에게 인계되어 면접 당일 면접 문제 개봉 시까지 보안이 유지되는 장소의 이중 잠금 장치가 있는 금고에 보관되게 된다.

### 4. 출제 후

- 면접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문제 출제 후 출제위원은 합숙장소에 격리되어 외부와의 연락이 통제되며, 면접 당일 오후반 첫 번째 면접 학생이 면접 평가실로 입실하게 되면 귀가하게 된다.
- 입학인재관리과에서는 면접 종료 후 면접 문제에 대한 면접 평가위원의 피드백과 수험생의 반응 등을 면담 또는 온라인 조사하여 면접 출제위원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들을 별도 정리하여 다음 모집 시기의 면접 출제위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 5. 문항 분석 및 평가

- 본교의 면접 문항에서 제시하는 상황은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경험했을 내용은 담고 있으며, 평소에 교육 현상이나 교직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교육적 관점을 정리해 온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문항을 제시하는 형식적 구조나 언어적 표현도 고등학생들에게 적절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 이렇게 볼 때, 본교의 면접 문항은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에 의해 평가가 결정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을 유발할 만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답변으로 요구하는 내용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특정한 지식이나 이론에 바탕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특히 그렇다. 오히려 개방형 질문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다양성과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교육과 선행 학습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교 면접 문항은 사교육이나 선행 학습 유발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 IV. 2024학년도 수시모집 면접 응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요약

- 우리 대학 수시모집 면접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면접)의 선행학습 유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응시 학생은 939명이고, 응답 학생은 408명이므로 설문 응답률은 43.5%이다. 응답 학생 중 남학생은 139명(34.1%), 여학생은 269명(65.9%)이다.
- 설문조사 결과, 선행학습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전체 응답 학생(408명) 중 60명(14.7%)이고, 선행학습을 하는 이유는 ‘대학 진학(면접, 논술 등)에 유리할 것 같아서’가 34명(56.7%), ‘학교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가 9명(15.0%), ‘남들이 다하니까 불안한 마음에’가 5명(8.3%), ‘부모님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가 1명(1.7%), ‘기타’가 11명(18.3%)로 나타났다.

<표12> 선행 학습 경험 유무 (대상: 응답 학생 408명)

(단위: 명, %)

선행 학습 경험	빈도(명)	비율(%)
있음	60	14.7
없음	348	85.3
전체	408	100

<표13> 선행학습의 이유 (대상: 선행 학습 경험자 중 해당 설문 응답자 60명)

(단위: 명, %)

대학 진학(면접, 논술 등)에 유리할 것 같아서	학교 교육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해서	남들이 다하니까 불안한 마음에	부모님 또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기타	합계
34 (56.7)	9 (15.0)	5 (8.3)	1 (1.7)	11 (18.3)	60 (100)

○ 우리 대학의 대학별고사(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에 대한 인식 수준을 ‘예’, ‘아니요’로 조사한 결과, 선행 학습 유발에 대한 비동의 빈도는 371명(91.6%)이고, 동의 빈도는 34명(8.4%)으로 나타났다.

<표14> 본교 대학별고사(면접)의 선행학습 유발 정도 (대상: 응답 학생 405명)

(단위: 명, %)

설문 내용	예	아니요	기타	전체
본교 면접은 고교 수준을 넘어선 선행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4 (8.4)	371 (91.6)	0 (0.0)	405 (100)

## V. 고등학교 교사의 면접 문항에 대한 평가 의견

○ 충청권 지역 소재 고등학교 교사로 구성된 ‘한국교원대학교 대입전형 선진화 자문단’의 자문교사는 본교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학별고사(면접)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 수준 내에서 답할 수 있으며, 대학 수준 이상의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표15> 충청권 소재 고등학교 교사의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문항 평가 의견

교사별	평가 의견
A교사 (충남 소재 고교)	귀교의 2024학년도 대학별고사 면접 문항은 고교 교육과정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학습과 활동을 통해 함양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는 문제이므로 선행 학습 유발 요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B교사 (충남 소재 고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었으며, 선행학습 유발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면접 문항으로 정상적인 고등학교 생활했다면 답변할 수 있는 문제이며, 논리적 사고를 평가할 수 있고 학생의 가치관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 문항이라 판단됩니다.
C교사 (충북 소재 고교)	2024 교원대 면접 문제는 사교육 유발 및 선행학습 유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D교사 (충북 소재 고교)	사교육 유발 및 선행학습 유발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우수한 면접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별	평가 의견
E교사 (대전시 소재 고교)	면접 문제는 교육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에 대해 다루고 있고 뉴스, 기사, 책 등을 통해서도 다루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유발했다고 보여 지는 부분이 없습니다.
F교사 (대전시 소재 고교)	사교육 유발, 선행학습 유발 모두 문제가 없으며, 내용과 수준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VI. 차년도 입학전형 반영 및 개선 계획

### 1. 차년도 대학 입학전형 반영계획

- 본교가 지향하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지금과 같이 교직에 대한 이해와 적성 및 인성, 미래의 교사로서 자질 등을 갖추고 있는지, 자기이해와 자기성찰의 태도를 갖춘 교원으로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교직 적·인성 중심 면접을 앞으로도 계속 운영하여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 2. 개선 계획

- 매년 신입생을 대상으로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선행학습 유발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유발 요인이 발견될 경우 개선하도록 하겠다.
- 현재도 진행 중이지만, 면접 과정이나 면접 문항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수험생과 현장 교사, 출제 참여자 및 면접관, 학교 행정 관련자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사전에 문제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겠다.

## VII. 부록

- 한국교원대학교 수시모집 면접문항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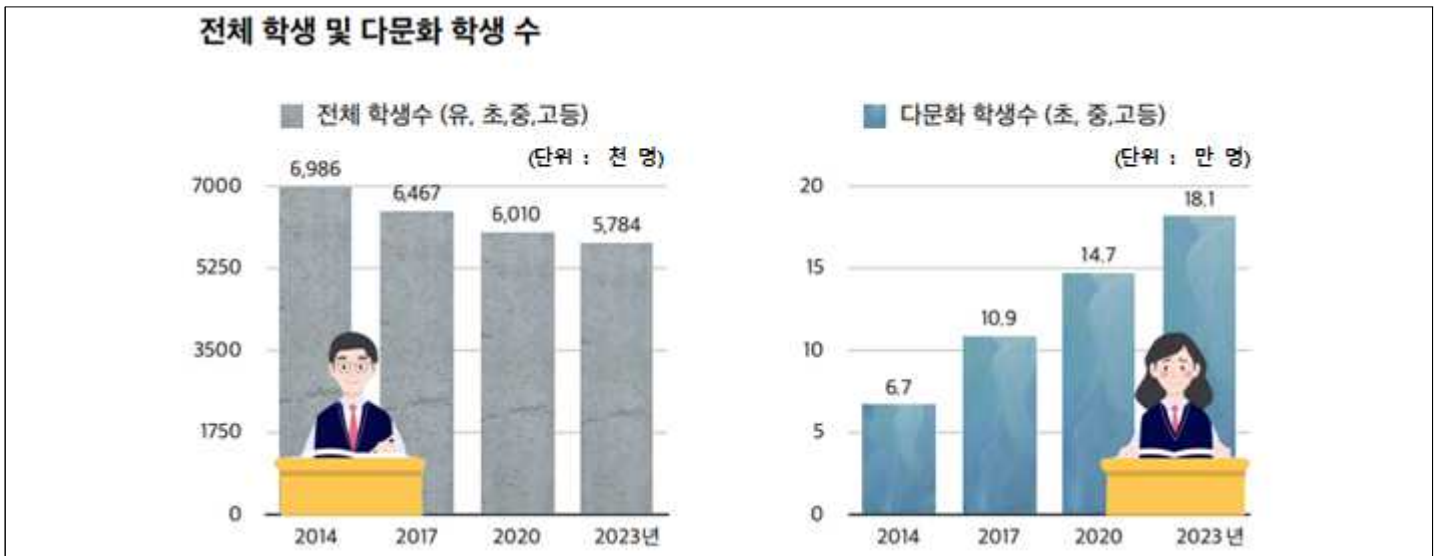
## 【부록】 한국교원대학교 수시모집 면접문항 정보

### 1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오전반)

####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우수자·국가보훈대상자·농어촌학생·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대상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초등교육과·사범대학 전체 학과(음악교육과 제외) / 문항 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교과 외(보편적 교육 관련 내용)
	핵심개념 및 용어	저출생 현상, 다문화 사회, 교육 현장의 변화
예상 소요 시간	6분 정도	

#### 2. 문항 및 제시문



- 1) 전체 학생 수의 추이를 고려할 때, 교육 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말하고 이에 대응하는 교육의 방향에 대해 설명해 보자.
- 2) 다문화 학생 수의 추이를 고려할 때, 교육 현장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 말하고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설명해 보자.

#### 3. 출제 의도

면접 대상 학생의 그래프 해석 및 분석 능력을 알아보고, 저출생 현상과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교육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한다. 최근 저출생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학생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교육의 이슈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단지 직접적으로 보이는 미래의 학생 수 감소 그 자체에만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닌 학령인구 감소 상황이 인구 변화, 학생의 특성, 교육여건 변화에 미칠 영향 등을 두루 살펴서 나아갈 교육의 방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삶의 많은 부분에서 '다름'이라는 존중이 아닌 차별을 느끼고 있으며, 사회생활의 대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교사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에 면접 대상 학생이 다양성에 대한 어떠한 시각과 견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 4. 평가 주안점

- 1)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여 교육적 상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한다. 그리고 저출생 문제의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까지 볼 수 있는 종합적 사고능력을 평가한다.
- 2) 면접 대상 학생이 교사가 되었을 때 마주하는 학생들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아울러 그래프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교사 역량과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를 평가한다.

### 2] 2024학년도 대학 수시모집 교직 적·인성 면접 문항(오후반)

#### 1. 일반정보

유형	면접 · 구술고사	
전형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종합우수자 · 국가보훈대상자 · 농어촌학생 ·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 장애인 등 대상자)	
해당 대학의 계열(과목) / 문항번호	초등교육과 · 사범대학 전체 학과(음악교육과 제외) / 문항 1	
출제범위	교육과정 과목명	교과 외(보편적 교육 관련 내용)
	핵심개념 및 용어	관옵티콘, 학생생활규정, 학생의 인권, 통제
예상 소요 시간	6분 정도	

#### 2. 문항 및 제시문

관옵티콘은 원래 인간의 신체를 효율적으로 감시하면서 길들이고자 한 근대 감옥이었다. 관옵티콘은 감옥 중앙의 감시탑에 간수가 없더라도 죄수들은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들어 효과적으로 죄수들의 신체와 정신을 통제하도록 만든 장치이다. 프랑스의 철학자 푸코는 사회 전반에 걸쳐 관옵티콘과 같은 방식으로 인간이 권력에 길들여지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최근에는 푸코의 이론에 근거하여 학교교육의 생활규정, 학교 공간배치, 평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규율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고 교육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A) 푸코의 관점에 근거한다면 학생들을 규율로 통제하는 방식은 비판받을 수 있다. 따라서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의 행동과 생활 태도를 규정하는 '학생생활규정' 등도 비판받을 수 있다. 이는 규율을 통해 학생들의 개성과 특성을 일정한 틀로 규격화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학생의 자유 실현을 저해한다는 입장이다.

(B) 반면에 학생들을 일정 수준 통제하여 규율을 지키도록 하지 않으면 교권 추락, 학생들의 일탈과 방종 등을 막을 방법이 없어 학교 교육활동의 정상적인 기능이 마비된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학생들이 건전한 사회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학교 규율을 통해 학생들을 통제하는 방식의 교육 운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1) 위에서 설명한 (A)와 (B)의 주장 중에서 면접 대상 학생이 찬성하는 하나의 입장을 선택하여, 그렇게 생각한 이유에 대해 두 가지 이상 근거를 들어 설명해 보자.
- 2) 면접 대상 학생이 1번에서 선택하여 설명한 주장에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보자.

#### 3. 출제 의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과 학생 인권 사이에서 균형 있는 시각과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교육계의 중요한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얼마나 균형 있는 시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평가의 목적이 있다.

---

특히 최근 학생생활규정을 통한 학생의 통제가 중요한가, 학생의 인권과 자율권이 우선인가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나름대로의 입장을 피력하고, 이 주장에 대한 단점을 보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게 하고자 한다. 아울러 교사로서 갖추어야 할 학생들의 인권과 규율 통제에 대한 조화로운 시각을 얼마나 잘 피력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출제 의도이다.

#### 4. 평가 주안점

- 1) 제시한 두 가지 관점은 각각 찬반의 입장이 나누어져 있거나 어느 한 쪽만의 선택에 유불리가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면접 대상 학생이 어느 한 쪽을 지지하여 논리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두 가지로 들어 설명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
- 2) 1번에서 지지한 주장에는 상대적으로 단점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어느 한쪽의 주장을 선정하더라도 그 주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나름대로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한다.